

제4차 한·불 및 제7차 한·영 방산 군수위 개최

- 방산 기술협력선 다변화 정책의 가속화 기대

프랑

스 파리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제4차 한·불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와, 이어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7차 한·영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국방부간에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협정에 의거, 매년 교대로 주최국 국방부에서 개최하며, 금번 회의시 한국측에서는 국방부 획득개발관인 유홍모 소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먼저 개최된 제4차 한·불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는 프랑스측에서 로제 국제협력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고, 토의의제는 양국 국방연구소간 연구개발분야 협력 확대, 양국간 방산장비 구매시 가격의 신뢰성을 보장할 상호가격검증약정서 체결 추진, 함정용 가스터빈 기술도입생산을 포함한 방산업체간 협력 내실

화 및 확대방안을 협의하며, 협력가능사업 및 분야에 대한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 회의에서는 영국측에서 메스필드 방산판매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고,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의 세부 협정인 국방과학기술교류 협정, 상호가격검증협정, 조함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군수지원 사항인 한국내 수리부속저장소 설치와 영국에서 도입된 LYNX, HAWK기 엔진의 한국내 창정비에 대한 토의와, 방산업체간 협력 내실화 및 확대 방안과 협력가능사업 분야에 대한 협의가 토의되었다.

국방부는 금번 양개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방산·기술협력선 다변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무기체계 및 기술획득과 관련하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방산업체간 협력 내실화와 운영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HAWK 훈련기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 추진

- 國科研 독자 개발 첨단기술을 대상으로

국방 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민수분야 이전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로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20여년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민수업체에 이전되는 기술은 음향차폐장치 설계기술 등 9건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92여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이다.

국방부는 금년 4월초 민수분야에 공개, 이전

가능한 11개 기술을 통상산업부 및 과학기술처에 통보하였으며, 관계부처의 기술수요 조사결과 현대전자, 삼성항공,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23개업체 및 7개 기관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해옴에 따라 제2차 기술설명회를 '97년 8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2연구개발본부(경남 진해소재)에서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94년 7월에 전산지도정보 및 도시용 소프트웨어 기술 등 12개 기술에 대해 1차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까지 14개 업체에서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아 상업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민수업체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 민수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사업을 매년 확대 실시하여 민·군 겸용 기술 상호교류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획득절차 첫 공개설명회 열려

국방 부는 8월 28일 국방회관에서 1백35개 군납 외자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국외도입 무기체계 획득절차 공개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공개 설명회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무기획득 절차를 통·폐합해 전력화 기간을 단축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적

으로 접수된 자료에 의해 시험평가업무를 실시하는 등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무기 획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불필요한 마찰은 물론 민원소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 설명회에 이어 9월 1일 ‘대함유도탄 방어유도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계획을 관보와 국방일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향후 업체의 제안서 접수, 시험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최적 기종을 결정하게 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방위산업체들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주어 공개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전쟁점검단, 수도권 피해 최소화에 중점

- 화학무기 공격 대비 방호대책 등 검토

북한 의 도발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발족된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단장 : 최돈걸 중장)은 8월 1일 발족 이후, 장차전 양상 및 수도권 지역 작전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군 및 정부기관의 전시계획 검토, '97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참여 등을 통해 확인한 분야별 취약점을 종합, 「전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수도권 기능 발휘 보장」에 중점을 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종합점검단은 장차전시 북한이 개전초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포함, 장사정 포병무기, 미사일, 전투기 등을 총동원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속전속결을 시도하고, 오산-강릉선까지 도달하는 장사정포(240mm 방사포) 공격, 남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SA-5, Scud등) 및 전투기 공격, 12만여명의 특수부대 후방침투 및 교란 등을 병행, 기계화 및 기갑부대를 집중투입하여 지·해·공군을 입체적으로 운용하여 전국토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장차전 양상을 전제로 본 수도권 지역 작전환경은 과거에 비해 인구, 차량, 산업 및 도시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전쟁 대비 중점을 「전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수도권 기능 발휘 보장」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종합점검단은 지난 한 달간 접적지역 주민 후방 철수 계획의 실효성 및 안전한 시행 대책, 수도권 사수 개념 아래 현 거주지에 잔류토록 되어있는 서울 시민들의 초전 생존성 보장대책,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방호대책, 대량 인명피해시 민관군 조치대책, 송유관·가스관 및 저장소 파괴시 대책, 단전·단수시 대책, 통신선 파괴시 긴급 조치대책,

전시 치안 및 경제사범 억제 대책, 수도권 행정 및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주민 및 교통 통제대책 등을 집중 검토해 왔다.

이와함께, 인력과 물자 등의 전시동원 보장 대책, 수도방위전력의 효율적 운용대책, 긴급 피해복구를 포함한 전시계획의 실효성 등도 심층 검토하여 50여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종합점검단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정책과제를 현장방문 및 확인과정을 거쳐 10월 초까지 구체화 하고, 11월초까지는 정책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 대한 골격이 완성되면, 이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민·관·군 통합 실체훈련 실시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11월중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한편, 종합점검단 발족 이후 전쟁대비에 관심있는 일부시민들의 자발적 제안이 답지되고 있는 바, 「단전·단수시 대책」, 「전시 주민 준수 사항 홍보」, 「지하철을 이용한 주민 철수 방안」, 「전시 비상식량 준비」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점검단은 이같은 시민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정책과제 구체화시 반영할 예정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아이디어 제안을 원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주 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 총괄처」(우 : 140-701)
- 전 화 : (02) 748-1950~3
- 인터넷 : <http://www.mnd.go.kr>
국방부 홈페이지

제7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개최

- 유도조종/체계분야의 핵심기술 기반구축에 기여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미래의 국가안보는 국방과학 기술 발전에 의존할 것이므로 미사일과 같은 고도정밀 유도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과학정보와 여러 계층의 공학기술을 공유하면서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기술협력하고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

지난 9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4연구개발본부 주최로 유도조종/체계 분야에 대한 제7차 유도무기 학술대회가 산·학·연 및 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환영사에서 배문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제간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21세기는 군사기술분야도 고도의 과학시대가 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21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유도조종과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이 기술보호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독자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연구 생산성을 향상하고 질적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며, 산·학·연 간의 관련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총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인 박찬빈

”고 피력하였다. 한편 대회를 마친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사례로 천마 유도무기 체계의 주요 개발과정 장면이 수록된 VTR을 상영하였으며, 비행시험중 유도탄이 견인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체계, 모델링/시뮬레이션, 유도, 실시간 컴퓨터, 제어, 구동, 탐지/추적, 항법, 시험평가 분야 등 9개분야에서 총 100편의 논문이 7개 발표장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산·학·연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유도조종/체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유도조종분야에 관한 공통기술과 최근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기술 분야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산·학·연·군 간의 긴밀한 기술협력체제의 구축과 연구개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첨단 유도무기의 연구개발에 대비한 핵심기술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